

『駱駝祥子』에 나타난 祥子の 奴隸性 考察

- N. 베르자예프의 『노예냐 자유냐』의 관점을 중심으로 -

1. 序 論

2. “노예” 또는 “자유”에 관한 문제

3. 祥子の 奴隸性

(1) 財産과 金錢에 의한 奴隸性

(2) 性的 魅惑에 대한 奴隸性

(3) 文明에 대한 인간의 隸屬

(4) 個人主義로 인한 奴隸性

(5) 祥子の 選擇에 따른 結果

4. 結論

참고자료

I. 序 論

老舍(1899~1966)는 그의 소설 『駱駝祥子』를 통해 모순된 사회가 한 인간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老舍는 주인공 ‘祥子’가 불행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모순과 개인주의로 보고 있다. 즉 가난이라는 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허용치 않는 사회가 祥子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마침내는 타락과 절망의 길로 가게 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이러한 사회가 인간에게 비극적 삶을 제공했다는 것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서 祥子の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이 모순된 사회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원인과 함께 개인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개인주의 문제²⁾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에서는 단지 개인주의로

1) 주인공 ‘祥子’의 불행을 사회의 불합리함에 원인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지영, 「老舍『駱駝祥子』의 인물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년, 권미란, 「老舍의 『駱駝祥子』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년, 박준석, 「老舍의 『駱駝祥子』에 비친 비극성 및 인도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년, 박기홍, 「『駱駝祥子』의 수정에 관한 소고」 논문집,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1996년 87~95쪽, 송현호, 유려아 「『운수좋은 날』과 『駱駝祥子』비교연구」,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학회, 2002년, 121~138쪽, 노민영 「『駱駝祥子』 소고」, 『梨花馨苑』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93년, 60~73쪽 등이 있다. 한국의 소설과 비교를 시도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숙, 「『탁류』와 『駱駝祥子』의 비교문학적 고찰」,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년, 이경돈,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과 『駱駝祥子』비교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인해 주인공이 파멸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뿐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N. 베르자예프³⁾의 『노예냐 자유냐(Slavery and Freedom)』⁴⁾의 내용은 보다 많은 논점을 제공한다. 인간은 노예인가 자유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결코 쉽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老舍의 소설 『駱駝祥子』속에서 祥子の 삶이 당시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낸 노예와 같은 삶, 또는 개인주의로 인한 파멸이었다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奴隸’라는 말은 ‘1.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사고 팔리기도 하던 노예적 사회의 피지배 계급, 2.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 3.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⁵⁾등으로 정의 된다. 1,2는 외적인 노예의 모습으로, 3은 내적인 노예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나 재물에 예속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에 예속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노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노예성이 자신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노예성이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노예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본고는 祥子の 삶을 외적인 노예성이 아닌 자신 안에 내재된 노예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려 한다. 老舍의 소설 『駱駝祥子』속의 주인공, 祥子에게는 수차례 選擇의 기회가 있었으며,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했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언제나 실패로 끝난 이유는 그의 내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의 奴隸性으로 인해서였다. 노예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財産 또는 性的 誘惑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文明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個人主義에서도 나타난다. 본고는 祥子は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낸 패배자이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내재된 노예성으로 인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祥子 뿐만이 아닌 모든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노예성일 수도 있다. 먼저 N.베르자예프의 『노예냐 자유냐』에서 제시하는 “노예”와 “자유”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 다음으로 祥子が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노예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순향, 「老舍의 『駱駝祥子』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년. 유경아, 「『駱駝祥子』인물군의 개인주의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3) 니콜라이 베르자예프(Nicolai Alexandrovitch Berdyaev, 1874~1948)공산주의의 모든 기존 질서에 대한 대담한 비판 때문에 25세 때 유배 생활을 하였고 1922년 소련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 프랑스에 정착하여 여생을 살았다.

4) N. 베르자예프 著, 이신 譯, 「노예냐 자유냐」, 도서출판 인간. 1979년. (이 책은 영문판 “Slavery and Freedom”의 우리말 번역이다.)

5) 표준국어대사전

2. “노예” 또는 “자유”에 관한 문제

인간이 잠재된 노예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인격의 자유⁶⁾를 쟁취해야 한다. 자유를 얻지 못한 인격은 主體性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인격은 客體化 경향으로 기울어져 스스로가 문명의 도구가 되고 만다. 주체성의 회복 이것이 곧 자유인 것이다. N.베르자예프는 “인격의 객체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客體化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객체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관계가 인격을 노예화 하는 것이며, 인간의 정신적 균열, 外在化, 소외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예성의 문제이다. 완전히 사회화되고 문명화된 인간은 전혀 비인격적일 것이다. 그는 노예일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노예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⁷⁾

인격을 말하면서 베르자예프는 “人格主義”를 주장한다. 언뜻 보면 “人格主義”는 “個人主義”와 혼동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인격주의”와는 달리 자기 중심적 고립을 야기한다. “개인주의”는 한편으로 “자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은 원죄와 같이 인격의 삶을 방해하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자아 중심적 개인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공상한다. 그러나 사실 자기 속에 자기를 폐쇄하는 나 아닌(非我)세계에 의해서 노예적으로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자아 중심적 의지가 외면적인 암시인 것은 세계가 자아중심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어떤 유기체의 한 부분이 아니다. 민족이나 사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보다 더 깊이 있으며 광범위한 것이다. 만일 인격을 사회에 종속된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만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베르자예프는 인격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인격은 주체로서, 다른 객체 중에서의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은 존재의 내면적 기구 속에, 즉 정신적 세계와 자유의 세계 속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반해서 사회는 하나의 객체이다. 사회와 자연은 인격형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격은 자연

6) 그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인격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격에 대한 기존 개념은 인격의 핵심을 놓쳐버린 채 추상화된 것이 아니면, 인격 비슷한 것을 인격으로 오인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베르자예프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파악한다거나 사회학적으로 파악해서는 <인격>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또 나아가서는 심리학적으로 파악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인격을 하나의 자연적 존재로 보는 것이며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베르자예프에게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그는 인격은 개인이라는 개념으로도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은 전체성의 한 부분으로서 자아 중심적 고립속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르자예프에게 있어서 인격은 이처럼 세계적인 것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인격은 세계적인 것 밖에서의 돌입이며, 객체화와 대립된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은 이 우주보다 그 비중이 더 무거운 것으로서 베르자예프가 말대로 말한다면 <인격은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주가 인격의 부분>인 것이다. N. 베르자예프, 「노예냐 자유냐」, 6쪽

7) N. 베르자예프, 「노예냐 자유냐」, 42쪽

에의 의존과, 사회와 국가에의 의존에서 해방된 존재이다.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행해지는 모든 결정에 대립하며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부의 결정은 자기 결정인데 神이라 할지라도 이 결정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인격과 신과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결정의 영역 밖에 있으며 그것은 자유의 영역 안에서 신은 인격에 대한 실존적 중심이다. 인격은 전 객체 세계 밖에서 내면의 자기를 결정한다. 내부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한 결정만이 인격이다. 외부에서 규정되고 결정된 것과 객체적 세계의 힘에 기초한 것은 어느 것이든 인격적일 수 없고 그런 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비인격적인 것이다. 8)

노예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종속을 의미한다. 무엇인가에 예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다. 보편적으로 상전이 되면 노예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노예성이란 하층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형화된 생각의 일부일 뿐이다. 상전이 되는 것 또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결국 상전이란 노예의 反面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폭군은 자신의 노예”라고 말한 바 있다. 타인을 노예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작가는 가장 두려운 인간은 '상전이 된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상전이 되려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자유인이 되는 길은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 안에 있으며 인간은 그런 자유를 선택할 의지가 있다. 3장 "祥子の 奴隸性"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 『駱駝祥子』 속의 주인공 祥子が 어떠한 노예성에 예속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祥子の 奴隸性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택을 할 의지가 있다. 老舍의 소설 『駱駝祥子』 속의 주인공 祥子에게도 여러 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었다. 물론 당시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그의 선택은 언제나 힘들고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선택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도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매번 실패로 끝났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없이 패배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때문에 소설의 결말은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말로 끝이 난다.

그 체면 차릴 줄 알고, 굳세고 희망을 가득 간직했던 祥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건장했던 위대한 祥子は 이제 얼마나 많이 남의 장례식의 대열에 섰는지 모른다. 언제 어디에 자신을 물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타락하고 제 잇속만 차리는 병든 사회 속에서 잉태된 불행한 그 자기를-. 개인주의의 말로가 빚어놓은 그 혼을!(體面的, 要強的, 好夢想的, 利己的, 個人的, 健壯的, 偉大的, 祥子, 不知陪着人家送了多少回殯;不知道何時何地會埋起他

8)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42, 43쪽

自己來, 埋起這墮落的, 自私的, 不幸的, 社會病胎里的產兒, 個人主義的末路鬼!)⁹⁾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그가 그토록 처참하게 轉落하고 만 것을 시대적인 상황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老舍의 지적대로 그의 개인주적 욕심 때문이었을까? 소설 속에서 祥子(양자)는 거세게 부딪쳐오는 악조건으로부터 끝까지 자신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찌면 그렇게도 세상은 그를 향해서 한 치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던 걸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 작가는 祥子의 몰락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렸다가 다시 개인주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祥子라는 한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사회라는 집단안에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마지막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財産(金錢)에 의한 奴隸性에서는 주인공이 인력거에 집착함으로써 예속되어지는 종속관계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性的 魅惑에 대한 奴隸性으로 끝없이 피하려 하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었던 性에 대한 유혹이 주인공을 파멸시켜가는 과정을 노예성에 근거하여 살펴보겠다.

노예나 자유냐에 대한 구분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祥子처럼 하류 인생을 산 사람만이 奴隸性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N. 베르자예프는 그의 저서인 『노예나 자유냐』를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시대의 인간들은 노예이기를 거부하면서도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명에 대한 인간의 예속은 사회라는 제도안에서 발생한 문명이 도리어 인간에게 종속관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억압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老舍도 지적했듯이 보이지 않게 인간을 예속하여 파멸시키는 것들 중에는 개인주의도 있다. 다음 장에서 베르자예프가 말하는 노예성의 구체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財産과金錢에 의한 奴隸性¹⁰⁾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소설 속 주인공 祥子(양자)는 위 문제의 해결점을 인력거에 두고 있다. 배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시로 올라온 도시 빈민은 건강한 자신의 몸만이 재산인 것이다. 다음에서 祥子(양자)가 도시로 와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시골청년의 우람스럽고 실직한 몸집에다 성실한 그는 힘을 팔아 밥벌어먹는 일이란 일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인력거 끄는 것이 그래도 돈벌이가 좀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다른 노동들은 수입에 한계가 있으나, 차를

9) 老舍, 『駱駝祥子』, 『老舍全集』 제3권, 人民文學出版社, 1999년. 222쪽

10)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40~250 참조.

끄는 일은 변화가 있고 기회도 좀 더 따라붙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온 좋게도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보수가 손에 굴러 들어올지 모른다.(帶着鄉間小伙子的足壯與誠實, 凡是以賣力氣就能吃飯的事他幾乎全作過了。可是, 不久他就看出來, 拉車是件更容易掙錢的事; 作別的苦工, 收入是有限的; 拉車多着一些變化與機會, 不知道在什麼時候與地點就會遇到一些多于所希望的報酬。)11)

도시로 와서 그가 선택한 직업은 인력거꾼이었다. 老舍는 祥子라는 인물에 대해서 젊고 건강했으며 성실하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고 설명하고12) 있다. 그는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력거를 끄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문 인력거꾼이 되었다. 자신의 인생을 인력거에 거는 꿈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결국 몇 년의 피땀이 北京의 거리를 적시고 나서야 그의 첫 소망은 이루어졌다. 바로 자신의 인력거를 갖는 꿈이었다.

응근 삼년 고스란히 지내고야 겨우 그는 백 원을 모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祥子は 얼굴이 벌개가지고는 떨리는 손으로 96원을 내밀었다. “이 인력거를 주쇼!”祥子の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보증서를 받아 품속에 간직하고는 인력거를 끌기 시작하였다. 거의 울음이 북받쳐 나오는 걸 참느라 애를 썼다.(整整的三年, 他湊足了一百塊錢! 他不能再等了...祥子的臉通紅, 手哆嗦着, 拍出九十六塊錢來; “我要這輛車!”...祥子的手哆嗦得更厲害了, 揣起保單, 拉起車, 幾乎要哭出來。)13)

인력거꾼으로 祥子の 삶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리고 이후 祥子は 인력거꾼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력거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의 인력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시작이 되고 만다.

그의 기쁨과 희망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 戰時의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력거를 몰던 祥子は 인력거를 빼앗겼을 뿐 만 아니라 군대에 끌려가기 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잘 살펴보면 운명이라기보다는 祥子の 욕심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는 더욱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에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무모하게 성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시도하였다.

중머리의 젊은이는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듯, 잠시 멍하였다.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 없었다. 오오라, 성 밖을 나가면 위험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칭후아라면 보통 때는 2.30전이면 가는 곳인데, 2원이나 준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달려들지 않지?(年輕光頭的楞了一會兒, 似乎不知怎樣好了。別人還都不動。祥子看出來, 出城一定有危險, 要不然兩塊錢清華-平常只是二三毛錢的事兒-爲什麼會沒人搶呢?)14)

11) 老舍, 『駱駝祥子』, 6쪽

1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다. 老舍는 주인공 祥子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영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설 속에서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어리석어 언제나 함정에 빠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준석, 老舍의 『『駱駝祥子』에 비친 비극성 및 인도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년, 유경아, 『『駱駝祥子』인물군의 개인주의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13) 老舍, 『駱駝祥子』, 10,11쪽

울분을 품고 군대에 끌려 다니던 그는 낙타 몇 마리를 끌고 도망 하였고, 그 도망으로 인해 겨우 목숨을 건졌을 뿐 만 아니라 낙타를 손에 넣으면서 평생의 이름도 얻었다.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삶의 시작 같았지만 결국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결정하는 암시이기도 했다. 낙타처럼 고단하게 살다가 가는 삶. 그것이 祥子の 삶이 되고 만 것이다.

祥子の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번의 선택은 돈을 수중에 모아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위험하게 했지만 그는 방씨 성을 가진 집에서 같이 일하던 高媽의 권유처럼 이자를 놓지도 계를 조직하지도 않았으며, 은행에 저금을 하는 일은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 더더욱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

祥子は 전에 방씨 성을 가진 집에도 있었다. 그 집 주인 식구 어른아이, 그리고 고용인들 까지도 모두 우체국에 저금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방씨 부인도 祥子에게 이렇게 권한 적이 있다. - 일원 한 장이면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자네는 왜 하나 만들지 않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있을 때에 항상 없을 생각하고 대비해 뒀어야지, 없어진 다음에 있을 때 그리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 말이야.....힘드는 일도 아니고, 안전하고, 또 이자가 붙고, 궁할 때는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고, 이 위에 더 편리할 게 뭐가 있겠나? 어서 가게, 가서 신청서 용지 하나 받아오게... 어느날 하루는 방씨 닥 큰따님이 祥子에게 10원을 우체국에다 저금해 달라고 시켰다. 祥子は 그 적은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하얗게 빛나는 은화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앉아서 서너 획 긁적이고는 끝난다. 이야말로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랴?(原先在一家姓方的家里, 主人全家大小, 連仆人, 都在郵局有個儲金折子. 方太太也勸過祥子;“一塊錢就可以立折子, 你怎麼不立一個呢? 俗言說得好, 常將有日思無日, 莫到無時盼有時;.....這又不費事, 又牢靠, 又有利錢, 哪時瞥住還可以提點兒用, 還要怎麼方便呢? 去, 去要個單子來,....有一天方大小姐叫他去給放進十塊錢, 他細細看了看那個小折子, 上面有字, 有小紅印; 通共, 哼, 也就有一小打手紙那麼沈吧)15)

사회적 제도인 은행을 믿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祥子の 어리석음, 그의 이러한 전 근대적 생각이 나중에 그를 얼마나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지 祥子は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무지한 그는 너무나 쉽게 손밀정에게 사기를 당하고 만다. 수중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祥子は 절망에 빠져 그토록 혐오하던 虎妞를 찾아가고 만다.

귀족제의 마력과 그 노예성에 비해 그것보다 더한 것은 부르주아 정신의 마력과 노예성이다. ...사회주의 대부분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정신 속에 부르주아 정신적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주아는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 하고 그것을 숭배한다.16)

14) 老舍, 『駱駝祥子』, 16쪽

15) 老舍, 『駱駝祥子』, 69쪽

16)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40, 241쪽

베르자예프는 그의 글을 통해 프롤레타리아가 지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려 해도 실현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경우 그는 또 다른 부르주아가 되고 말 것이고 이러한 일은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는 물건의 영역을 창조하고 물건은 그를 제어한다. 부르주아의 세상에서는 <그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이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은 부르주아의 세계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인간들은 이러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라고 베르자예프는 경고하고 있다.

祥子は 프롤레타리아였다. 그는 끊임없이 부르주아처럼 되기를 갈망했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구는 설사 그가 부르주아가 되었다 해도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물질의 노예가 될 뿐이다. 祥子の 노력은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게 했지만 결국은 노예에서 다른 노예가 되기 위한 노력에 불과했다.

(2) 性的 魅惑에 대한 奴隸性¹⁷⁾

祥子の 다음 선택은 虎妞였다. 그는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순결한 아내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으로 애써 純潔을 지켜왔다. 그에게 있어서 순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만은 아니었다. 그에게 순결은 信念이었고 그를 지탱하는 自尊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밀정에게 돈을 잃고 나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절망을 딛고 다시 시작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인력거를 잃었고 다음에는 그 꿈을 다시 이룰 돈을 너무나 허망하게 빼앗겼다. 그는 절망했다. 이제 그에게 希望이란 다시는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돈을 잃은 절망감이 밀려오자, 祥子は 결국 虎妞를 찾아갔다. 그리고 언제나 祥子를 유혹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던 노처녀 虎妞의 誘惑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혹은 그의 인생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만든다. 그는 임신했다고 말하는 虎妞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하고 만 것이다. 이 때 그가 끝까지 虎妞를 뿌리쳤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것은 虎妞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녀는 에로스적인 매혹의 노예가 되어 祥子에게 집착하였다. 그녀에게는 돈보다도 자신의 위치보다도 젊은 祥子에게서 보여지는 순수한 매력이 더 커다랗게 느껴졌으며 그러한 그녀의 욕심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인간이 성에 의해 타락하게 되는 관계를 베르자예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로스적인 매혹은 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매혹이며 또 성에 대한 노예성은 인간의 노예성의 극히 깊은 근원 중의 하나이다....인간은 성에 대한 노예성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성에 태도는 기묘하고 다른 문제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인간과 <타락>과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상을 갖게 된다.¹⁸⁾

17)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77 ~295쪽 참조.

18)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77, 278쪽

祥子에게는 結婚에 대해 나름대로 計劃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虎妞에게 무너진 그의 정신은 자신을 저주하며 墮落의 길로 떨어진다. 이것은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으며 비참한 말로의 전주곡이었다. 祥子は 虎妞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한 채 결국 억지 결혼에까지 이르고 만다. 그러나 그의 결혼은 그로 하여금 그녀를 처음보다도 더욱 증오하게 만든다. 虎妞와의 결혼은 그에게 그동안 그를 지배하고 통제했던 그녀의 모습과 더불어 억지로 동정을 빼앗았던 모습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진정한 愛情이 아닌 압제당하는 侮蔑感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祥子로 하여금 虎妞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그를 제압하려는 虎妞(실사 그녀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표현은 언제나 祥子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의 모습과 그러한 그녀의 모습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祥子の 모습으로 나타난다.

虎妞는 빨간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얀 분과 연지를 바르고, 祥子를 흘깃흘깃 보고 있었다. 祥子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여자 같기도 하고 또 남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또한 무슨 흉악한 짐승 같기도 하다! 이 짐승은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서 이미 자기를 노획했으며, 노획물을 천천히 차분하게 요리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虎妞穿着紅襖，臉上抹着白粉與胭脂，眼睛溜着他。他不敢正眼看她....像女的，又像男的；像人，又像什麼凶惡的走獸！這個走獸，穿着紅襖，已經捉到他，還預備着細細的收拾他)¹⁹⁾

이제 와서 보면 볼수록 증오스러웠는데, 그는 이토록 사람에게 증오를 품어본 적이 없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祥子에게는 그녀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증오스러운 존재는 있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그는 꼭 참았다. 깨끗이 손을 끊을 수는 없는 이상 아무리 싸움을 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그는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굴욕을 느꼈다(現在越看她越討厭，他永遠沒恨人像恨她這麼厲害，他說不上是爲了什麼。有氣，可是不肯發作，全圖在心里；既不能和她一刀兩斷，吵架是沒意思的，在小屋里轉轉着，他感到整個的生命是一部委屈。)²⁰⁾

여성의 사랑을 베르자예프는 횡포라고 말한다. 여성이 사랑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여 인격을 훼손한다. 또한 虎妞처럼 격한 성격을 가지고 남성을 통제하려 드는 경우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어 악마적 성격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횡포가 심한 것은 여성의 사랑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격의 원리와 충돌한다. 사랑과 질투의 결합은 악마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격하기 쉬운 여성에게 가장 뚜렷하다.²¹⁾

19) 老舍, 『駱駝祥子』, 131쪽

20) 老舍, 『駱駝祥子』, 135쪽

祥子は 지나치리만큼 虎妞를 憎惡하고 그 증오는 나날이 더해간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떠나지 못한 채 집에서 뛰쳐나갔다가는 결국 다시 돌아오곤 한다. 이렇게 그가 그녀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노예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虎妞는 임신했다고 그를 속였지만, 祥子が 그녀의 임신으로 인해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책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오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나지는 못했다. 견딜 수 없는 증오심에 집을 뛰쳐나갔지만 결국 그녀 곁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가 虎妞곁으로 돌아 온 이유는 단 한가지로 스스로의 의지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자신을 압제한다고 생각했기에 벗어나고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가 자의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어디로 간다? 그는 목적지가 없었다. 평소에 인력거를 끌 때, 그의 다리는 항상 남의 입에 따라서 움직였다. 오늘 다리가 자유롭게 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연해 있었다.(上哪里去呢? 他沒有目的地。平日拉車, 他的脚隨着別人的嘴走; 今天, 他的脚自由了, 心中茫然。)22)

祥子, 가난한 그의 삶은 세상에 흐름에 내맡겨진 채 유지되어 왔다. 그는 오로지 인력거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아름답고 건장한 몸을 움직였고, 인력거를 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손님이 그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어떻게 달릴 것인가? 얼마를 벌 것인가? 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祥子에게 주어진 자유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를 망연하게 했다. 언제나 명령 받는 삶만 살았던 그에게 자의에 의해 가야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다음으로 그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함께 살기를 희망한 여인 小福子를 잃는 과정을 살펴보자.

사랑의 문제는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탈사회화 해야 하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탈사회화 되어 있다. 가정은 사회화되지마는 사랑은 사회화 될 수 없다.23)

아내 虎妞가 죽고 나자 祥子は 같은 집에 살던 小福子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가 북경에 처음 와서 꿈꾸었던 아내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는 虎妞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혐오하였었지만 小福子是 창녀였다. 그러나 祥子에게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참말이라는 것은 본래 많지 않으며, 또한 여인의 얼굴 붉힘은 어떠한 장광설도

21) N.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93쪽

22) 老舍, 『駱駝祥子』, 132쪽

23) N.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277, 278쪽

그 참됨을 따를 수가 없다. 祥子같은 우둔한 사람도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아름다움이 뼈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만신창에 살가죽이 모두 문드러졌다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는 의연히 아름다울 것이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젊었고, 노력하였고 근검하였다. 祥子が 다시 아내를 얻는다면 그녀야말로 이상적 인물이다(人間的眞話本來不多, 一個女子的臉紅勝過一大片話; 連祥子也明白了她的意思。在他的眠里, 她是個最美的女子, 美在骨頭里, 就是她滿身都長了瘡, 把皮肉都爛掉, 在他心中他依然很美。他美, 他年輕, 她要強。她勤儉。假若祥子想再娶, 他是個理想的人)²⁴⁾

그는 小福子が 어떤 여인인지, 그의 불행한 家庭事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다시 찾으려 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가진 환경이나 육체적 순결에 있는 것이 아님을 祥子は 비로소 깨닫게 된다. 祥子が 小福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가 그토록 虎妞를 증오했던 것은 그녀가 순결하지 않았거나, 못생기고 그보다 나이가 많다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지배당하며 강요당하는 그러한 관계를 증오했던 것이다. 그러나 祥子は 이 사랑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여자를 그토록 증오했던 祥子가 이제야 비로소 의지할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도 祥子の 머뭇거림으로 인해 이루어 질 수가 없게 되었다. 小福子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분명 노예성이라는 말로 규정하기 어렵다. 小福子를 노예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虎妞든 小福子든 남성에게 여자란 어떤 예속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신을 억압하는 여인 때문에 절망했던 祥子は 후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상실감에 자포자기 하고 만다. 결국 두 여인 모두 祥子の 삶에 아픔을 가져오는 존재가 된 것이다.

(3) 文明에 대한 인간의 隸屬²⁵⁾

「駱駝祥子」는 도시빈민의 비극적 운명을 대표한 작품이다. 농촌의 붕괴로 파산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전하며 생활한다. 이들 삶의 비참함을 관찰한 老舍는 도시문명의 병폐와 인성의 관계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描寫²⁶⁾하고 있다. 단지 인력거 한 대만을 꿈꾸며 젊은 피와 땀으로 북경의 거리를 적시는 순박한 시골청년이 文明²⁷⁾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종속 관계 속에서 어떻게

24) 老舍, 「駱駝祥子」, 179쪽

25)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61~176쪽 참조.

26) 錢理群外2人 著,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1998년, 249~251쪽

27) 文明과 문화의 차이를 베르자예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와 文明은 항상 존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文明이 문화보다 오래되고 원시적라서 문화는 뒤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이 장치의 발명, 원시인의 도구 발명, 이러한 것은 文明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文明이 바로 사회화 과정의 전체였기 때문이다 文明이란 보다 사회적인 집단적 과정을 의미하며 문화(culture)보다 개성적인 과정과 보다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67쪽 참조.

게 몰락해 가는 가를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祥子は 시골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일구어 먹고 살아갈 토지도 어떤 이유에서 인가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그는 도회지로 흘러들어 무엇인가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祥子は 北京으로 올라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도시는 가난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된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祥子は 본래 시골에서 자랐다. 양친이 돌아가시자 얼마 되지 않는 전답도 남의 손에 넘어가서 북경거리에 들어선 것이 나이 열여덟 살 때였다(生長在鄉間, 失去了父母與幾苗薄田, 十八壽的時候便跑到城里來。)28)

인간이 노예성의 상태에 있는 것은 다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명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그러나 순식간에 인간은 이 결과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나타났다.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명의 발전은 인류의 거대한 집단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압박과 착취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문명의 객체적인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되었다...문명 속에는 독소가 있으며 거기에는 허위와 부정이 있고 그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29)

祥子は 순박한 농부였지만 농촌에서 살 기반을 잃고 말았다. 결국 문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문명의 세계를 향해 도시로 왔다. 그는 그곳에서 문명의 혜택에 빌붙어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문명은 그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문명의 기준과 인습성에 속박 당한다. 문명은 수단으로 생겨났지만 목적이 되고 인간을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되어 버렸다. 그는 사회에 예속되어 문명의 발달을 통해 만들어진 인력거를 끄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평생 자신은 타 보지도 못하는 인력거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4) 個人主義로 인한 奴隸性30)

祥子は 처음 인력거를 잃고 나자 오로지 돈에만 집착하여 다시 인력거를 사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이순향31)은 個人主義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祥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야수와 같다고 묘사한 내용을 살펴보자.

그에게는 오직 돈만 보였다. 많던, 적던, 장사가 어렵던지 쉽던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의

28) 老舍, 『駱駝祥子』, 6쪽

29)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61쪽

30)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77~186쪽

31) 이순향, 「老舍의 『駱駝祥子』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년, 45~49쪽 참조

손님도 빼앗았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굶주려서 발광한 야수처럼 손님을 태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他只看見錢, 多一個是一個, 不管賣買的苦惱, 不管是和雖搶生意; 他只管拉上買賣, 不管別的象一只錢瘋的野獸。)32)

유경아, 박준석 등33)은 祥子の 성격적 결함을 개인주의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란 결국 자신에 의해 노예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노예가 되지만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 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예성에 관한 마지막 진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의 노예라는 사실이다. 그는 객체 세계의 노예에 빠지는데 이것은 자기의 외재화에 대한 노예성인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우상의 종>인데 이것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다....인간의 노예화는 단순히 외부적인 힘이 그를 노예화하는 사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며 그를 노예화하는 힘의 작용을 곱씹고 잘 받아들인다는 그 점에도 있는 것이다....자유로운 인간은 사회적 예종(隸從)을 견딜 수 없다.34)

윗글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진 노예성은 단순히 祥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신에게 노예화 되며 그것은 하등의 동물적 본성에서부터 세련된 자량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장 높은 이념과 그의 최고의 감정과 재능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베르자예프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야(여기에서 자유라는 것은 인격의 자유를 말한다)한다고 설명한다. 인격의 자유는 의무여서 인격은 자유로워야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는 인격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인간은 노예가 되기를 즐기고 예속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써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속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노예성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는 간단히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것은 적극성 및 소극성의 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격주의가 종종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이처럼 말의 용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다. 어떤 사람이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그 성격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경우와, 그의 판단이 독립적이며 독창적이며 자유이든, 자기 속에 고립해 있으면서 교제를 좋아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모멸자(侮蔑者), 또는 자아 중심주의자인 경우이기 때문이다...인격의 가장 드높은 가치의 긍정과, 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다.35)

32) 老舍, 『駱駝祥子』, 39쪽

33) 유경아, 『『駱駝祥子』인물군의 개인주의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박준석, 『老舍의 『駱駝祥子』에 비친 비극성 및 인도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년.

34)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77쪽

老舍는 자신의 候記인 “나는 어떻게 『駱駝祥子』를 썼는가?(我怎樣寫『駱駝祥子』)”³⁶⁾를 통해서 『駱駝祥子』는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며 이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다. 老舍가 祥子の 訶罵의 책임을 그의 개인주의³⁷⁾로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준석은 그의 논문³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老舍는 초기 작품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여겨, 개인의 도덕적 개선, 向上心理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³⁹⁾했지만 『牛天賜傳』⁴⁰⁾을 연재하면서는 부패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개인·영웅주의가 어떤 소용을 지니는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다. 그러다가 『駱駝祥子』에 이르러서는 단체행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다.”⁴¹⁾ 老舍는 『駱駝祥子』에서 개인적인 노력, 즉 개인주의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절망의 길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老舍는 祥子の 비극이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個人主義”의 대립 개념으로 “集團主義”를 제시한다. 그러나 “集團主義”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소설속에서는 높고 가난한 인력거꾼이 집단의 위력을 메뚜기 떼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그 설명의 내용이다.

가난뱅이 혼자서는 잘 해보려 해도 하늘 오르기보다 힘들지. 혼자서 무슨 수가 있겠는가? 메뚜기를 본 적이 있소? 한 마리 묶어 잡아 놓으면 나는 것조차 못하지. 무리를 만나 무더기 떼를 지으면 흥, 순간 마을의 논밭을 몽땅 먹어치우지. 아무도 그놈들을 다스릴 수는 없다네!(干苦活兒的打算獨自一個人混好, 比登天還難。一個人能有什麼蹦兒? 看見過螞蚱吧? 獨自一個兒也蹦得怪遠的, 可是教個小孩子逮住, 用線兒拴上, 連飛也飛不起來 趕到成了群, 打成陳, 哼, 一陣就把整頓的壓稼吃淨, 誰也沒法兒治它們!)⁴²⁾

老舍는 단체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체는 그 뜻을 함께 할 때는 힘을 과시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내분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일 수가 없다. 동물이 무리를 이루는 것은 분명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

35)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180, 181쪽

36) 老舍는 1935년 9월부터 『宇宙風』 잡지에 자신의 창작담을 써서 “老牛破車시리즈”로 큰 제목을 달아 연재했다. 이 글은 여기에 실린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것과 일련의 계보를 같이하는 글로서 1945년 항일전쟁승리 직전에 北碚의 집에서 집필하여 重慶의 잡지 『青年知識』一卷二期에 公刊되었던 것이다.

37) 老舍 我怎樣寫『駱駝祥子』, 『老舍文集』, 제15권, 人民文學出版社, 1995년. 박준석 논문 再引用.

38) 박준석, 「『駱駝祥子』에 비친 비극성 및 인도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5. 31~36쪽 참조.

39) 佟家桓, “論老舍長篇小說的藝術風格”, 文藝論叢, 제 17집, (상해: 상해문예출판사, 1983), 301쪽, 박준석 논문 再引用.

40) 잡지 「論語」에 1934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 까지 연재됐으며, 1936년 3월 人間書室에서 초판을 간행함.

41) 夏志清 著, 劉紹銘 編, 『中國現代小說史』, 臺北: 傳記文學社, 1979년. 200쪽

42) 老舍, 「駱駝祥子」, 207쪽

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는 달리 안전이라는 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분명 “集團主義”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個人主義”든 “集團主義”든 인간을 예속시킨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集團主義”⁴³⁾는 “個人主義”의 반대일 뿐이다. 오히려 “個人主義”의 반대 개념은 “人格主義”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력, 인격을 무시하는 노예화 사회로의 진행이 加速化되고 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림으로 스스로가 물질의 노예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5) 祥子の 選擇에 따른 結果

祥子は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여러 번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모두 불행으로 끝나고 만다. 만일 祥子が 위의 모든 선택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양심적이며 선량했지만 매우 우직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쉽게 이용당하였고, 재산을 잃고 아내와 사랑하는 여인도 잃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사회의 쓰레기로 남겨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노력도 하려 하지 않는다. 어떠한 노력도 그에게 그 보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을 통해 자유롭게 되는 삶, 그런 것은 없었다. 어찌 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 순간이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자유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에도 매이지도 않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진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인간 안에 존재하는 많은 노예성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으로써의 삶도 아닌 그렇다고 죽음도 아닌 그런 허무의 공간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祥子에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가치한 것이다. 허무와 좌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祥子の 마지막 모습이다. N. 베르자예프는 성격이 사람을 지배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격과 성격의 결합을 통한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격은 성격과 결합한다. 강력한 인격은 표방된 성격이다. 성격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원리의 승리인데 그 승리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승리이며, 이 형태는 인간의 영혼주체구조와 결합되어 있다. 성격은 자기를 지배하는 위력의 소유이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예측에의 승리, 둘러싸인 세계에 대한 예측에의 승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승리이다 성격은 무엇보다도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이 자유는 무차별의 자유와 같은 의지의 자유, 곧 초보적인 의미로서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게는

43) 集團主義의 노예성에 관해서 베르자예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인간은 자신이 무기력과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안정을 구한다. 인간은 그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는 일에 동의한다.” N. 베르자예프, 『노예냐 자유냐』, 250쪽

통합체로서 인간의 실존과 결합되어 있다. 그 성격은 정신의 자유 곧 창조적 정신력의 자유인 것이다.⁴⁴⁾

사람의 정신은 인격과 인간의 성격을 창조한다. 정신이 그 활동을 그만 둘 때 인격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언제나 명령받고 살던 사람에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한 번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이미 자유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정신력의 결핍은 인격의 자유에 대한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인격의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던 祥子는 노예일 수밖에 없었다.

4. 結論

위에서 老舍의 소설 『駱駝祥子』 속의 주인공 祥子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선택과 그 선택 속에 존재했던 奴隸性의 실체를 고찰해 보았다. 실패한 祥子, 그 원인을 살펴보면 祥子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예성과 무관하지 않다. 작자인 老舍는 아름답고 순박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유입된 순간부터 점점 타락하여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그가 타락한 이유를 사회적 모순과 개인주의에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논문들은 이러한 관점을 규명하려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철학자 N.베르자예프는 그의 저서 『노예나 자유냐』에서 인간의 노예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인간의 삶을 예속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인간도 자유로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노예성에 대한 문제이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자예프는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다양한 예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리는 항상 자유와 결합하고 자유 위에만 머문다. 노예성은 항상 진리의 否定이며 진리의 恐怖이기도 하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노예화하는 공포에 대한 승리이다.⁴⁵⁾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부터까지 자유롭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예속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에게 ‘노예나 자유냐’를 묻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해답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며 양분하여 대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해오고 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불행에 이르

44)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69쪽

45) N. 베르자예프, 『노예나 자유냐』, 99쪽

게 하는 노예성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자신의 선택에 있다. 인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인간에게는 분명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기회가 있는 한 인간은 결코 노예일 수 없다. 태초에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자유라는 의지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老舍의 소설 『駱駝祥子』 속의 祥子は 결코 모순된 사회가 낳은 비극적 인간도 개인주의에 의해 몰락된 가련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안의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예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한 불행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參 考 文 獻

- 老舍, 『駱駝祥子』, 『老舍全集』 제3권, 人民文學出版社, 1999년
錢理群外2人 著,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1998년,
夏志清 著, 劉紹銘 編, 『中國現代小說史』, 臺北, 傳記文學社, 1979년
老舍 著, 최영애 譯, 『駱駝祥子』, 통나무, 1996년 上, 下
老舍 著, 김하중 譯, 『駱駝祥子』, 금성출판사, 1981년
N. 베르자예프 著, 이신 譯, 『노예냐 자유냐』, 도서출판 인간, 1979년
김지영, 「老舍『駱駝祥子』의 인물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년
유경아, 「『駱駝祥子』인물군의 개인주의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권미란, 「老舍의 『駱駝祥子』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년
김현숙, 「『탁류』와 『駱駝祥子』의 비교문학적 고찰」,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년
김의진, 「老舍小說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년
이경돈,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과 『駱駝祥子』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박준석, 「『駱駝祥子』에 비친 비극성 및 인도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년
박기홍, 「『駱駝祥子』의 수정에 관한 소고」 논문집,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1996년
송현호, 유려아 「『운수좋은 날』과 『駱駝祥子』비교연구」,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02년
노민영 「駱駝祥子소고」, 『梨花馨苑』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93년

<영문초록>

A Study of Xiángzi's Servility Revealed in "Rickshaw Boy"

- Centering on the perspective of N. Berdyaev's 『Slavery and Freedom』

In his novel 『Rickshaw Boy』, Lǎoshe (老舍 (1899~1966): A Chinese novelist / play writer) describes a contradictory society encroaching upon a man. Lǎoshe places the cause of the main character Xiángzi's misfortune on individualism and the structural contraction of the society, which neglects the lives of people in the lower classes. However, he does not present specific breakthroughs for the cause. Is a human a slave or free being? It is never easy to answer this question since human being can be a slave or be free by himself or herself.

If Xiángzi was in different circumstances, could he be free? What if he got a rickshaw that he always had wanted to have? Ye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lready exhibited in the novel. The result is the same. Considering this, N. Berdyaev's 『Slavery and Freedom』 suggests a considerable number of points. And here is the reason why it can not be determined that Xiángzi's life, in Lǎoshe's novel 『Rickshaw Boy』, was like that of a slave resulted from the contradictory society of those times or was a destruction caused by individualism.

The main character of 『Rickshaw Boy』, Xiángzi, had many chances to choose and he did make a choice by his own free will whenever he faced one. Yet,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choices he made was the different servilities that existed inside him. Servility is presented in the properties that we each possess or the sexual seduction; it is also exhibited in individuality that is hiding inside human beings.

Xiángzi, in the novel, seemed to make an attempt to free himself from all that subdued him, yet he could not do so ultimately. The freedom comes when one acknowledges his or her personality and tries not to lose his or her life from outer thing.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that Xiángzi was doomed to be a loser because of his servility within; he was already a slave to himself before being affected by the contradictory society. Such phenomenon could be due to the servility of Xiángzi but also to that of inside all human beings.

Keywords: Rickshaw Boy, Servility, Individualism and Rickshaw